

일과 직업의 사회학

여성과 직업세계

김현우, PhD¹

¹충북대학교 사회학과 조교수

June 15, 2022



진행 순서

- 1 여성의 경제활동과 직업분포
- 2 성별임금격차
- 3 가사노동의 성별분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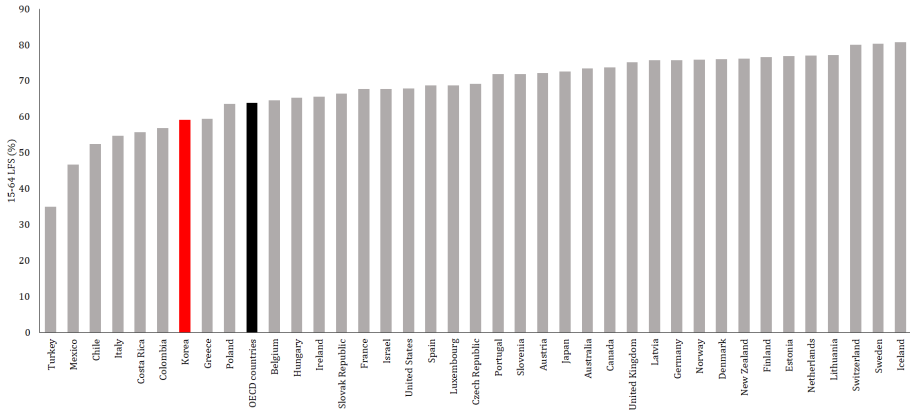
여성의 경제활동과 직업분포

여성의 경제활동과 직업분포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를 통해 여성의 일과 직업에 관해 기본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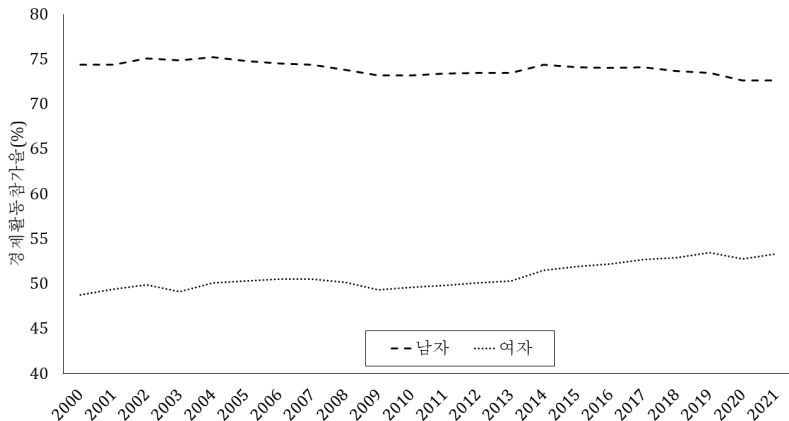
- 특히 (1) 경활참여, (2) 산별·직업별 분포, (3) 고용형태별 분포, (4) 연령별 분포를 확인하는 것이 기본이다.
- 첫째, 여성은 남성보다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비율이 낮다. 우리나라의 여성 경제활동은 다른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도 매우 낮은 수준이다.
- **경제활동참가율(labor force participation rate)**은 (만 15세 이상 인구 중) 경제활동인구(취업자+실업자)/전체 인구로 정의된다.
- 낮은 경활은 여성 개인의 차원에서 보면 사회활동을 통한 자아실현의 기회가 부족함을 시사한다.. 이른바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보더라도 여성 노동력을 활용하는 수준이 낮다고도 볼 수 있다.

여성의 경제활동과 직업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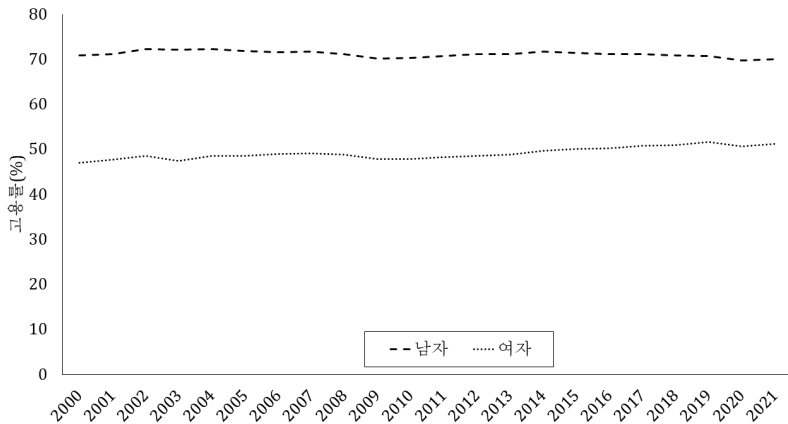
여성의 경제활동과 직업분포

- 여성의 경제참가율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점진적으로 개선되어 왔다. 그러나 개선의 속도는 대단히 더디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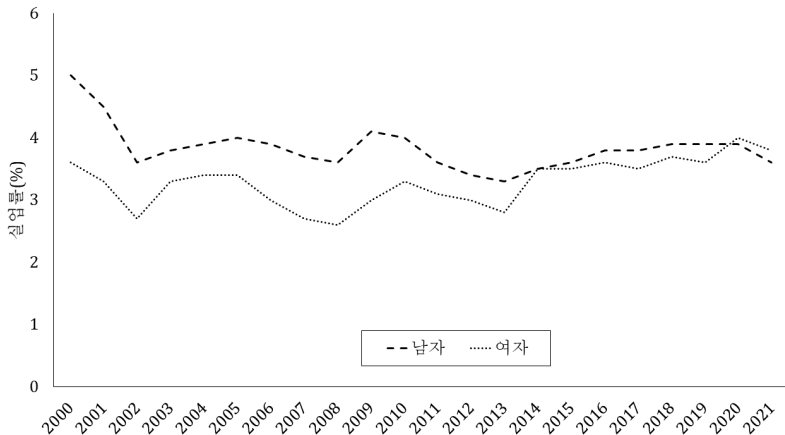
여성의 경제활동과 직업분포

- 고용률(employment rate)은 (만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전체 인구로 정의된다.
- 여성의 고용률도 시간의 경과에 따라 점진적으로 개선되어 왔지만 개선의 속도는 대단히 더딘 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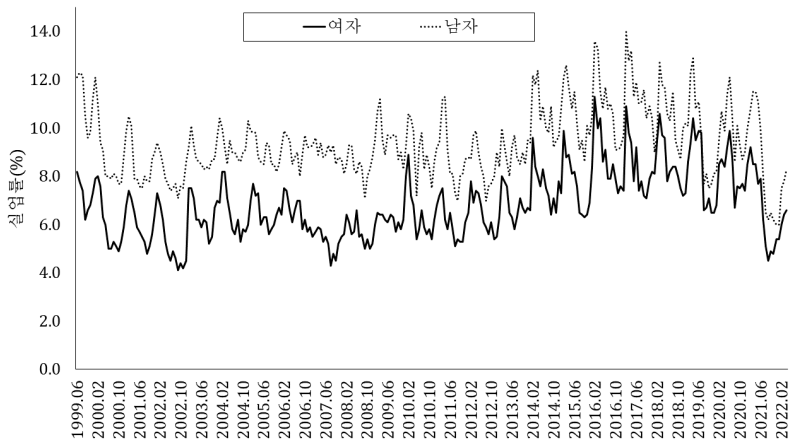
여성의 경제활동과 직업분포

- 실업률(unemployment rate)은 실업자/경제활동인구(=취업자+실업자)로 정의된다.
- 기본적으로 남성의 실업률이 여성보다 높다. 한편 남성의 실업률이 감소한 반면, 여성의 실업률은 증가하였다(그 의미를 생각해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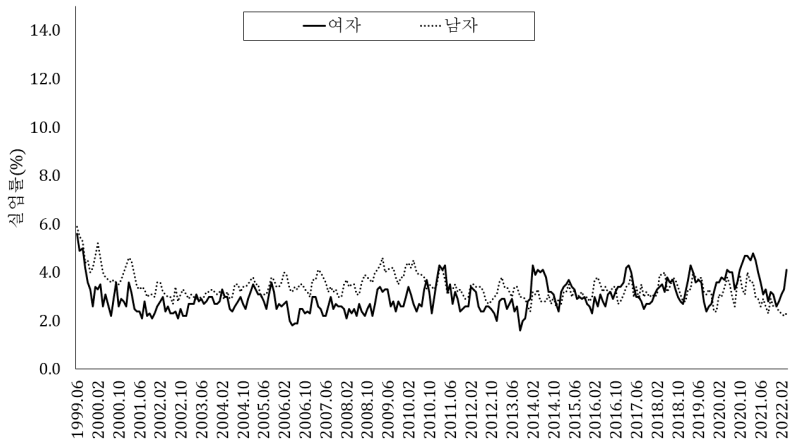
여성의 경제활동과 직업분포

- 그런데 잘 들여다보면 실업률은 연령대-성별에 따라 상이하다. 20대에서는 남성 실업률이 높았지만 여성 실업률이 바짝 따라잡았다.



여성의 경제활동과 직업분포

- 30대에서도 남성 실업률이 높았지만 여성 실업률이 이미 따라잡아 오히려 더 높다.



여성의 경제활동과 직업분포

둘째, 산업 및 직업별로 남자의 일과 여자의 일이 ‘미묘하게’ 따로 있다.

- 다시 말해, 산업별로 그리고 직무수준 및 직무유형별로 인적구성은 **젠더화(gendered)**되어 있다.
- 산업별로는 (1) 보건사회복지 서비스업, (2) 교육 서비스업, (3) 숙박 및 음식점업에 여성이 유난히 집중되어 있고, (1) 건설업, (2) 제조업, (3) 운수 및 창고업에는 여성이 유난히 보이지 않는다.

산업별 취업자 구성	2020			산업별 취업자 구성	2020		
	여성	남성	격차		여성	남성	격차
보건사회복지 서비스업	16.6	2.8	1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2.1	1.7	0.4
도소매업	13.9	12.3	1.6	정보통신업	2.0	4.0	-2.0
숙박 및 음식점업	11.5	5.3	6.2	건설업	1.8	11.8	-10.0
제조업	10.8	20.4	-9.6	부동산업	1.7	2.1	-0.4
교육 서비스업	10.4	3.9	6.5	운수 및 창고업	1.6	8.4	-6.8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5.2	3.8	1.4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생산활동	0.8	0.0	0.8
사업시설관리	5.0	5.0	0.0	수도하수폐기물	0.2	0.8	-0.6
농림어업	4.9	5.7	-0.8	전기가스	0.1	0.4	-0.3
공공행정	4.1	4.1	0.0	국제 및 외국기관	0.1	0.1	0.0
금융 및 보험업	3.7	2.3	1.4	광업	0.0	0.1	-0.1
전문, 과학 및 기술	3.6	4.9	-1.3	계	11523	153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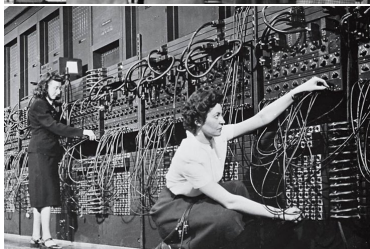
여성의 경제활동과 직업분포

- (전통적으로 그리고 지금까지) 제조업은 줄곧 대표적인 남자의 일로 여겨져 온 반면, 사회복지 및 간호는 대표적인 **여자의 일(women's work)**로 여겨져 왔다.
- 이런 종류의 문화적 영향력과 사회적 기대는 놀랄만큼 강력하여 상당히 끈질기게 이어진다. 심지어 선진국에서도 이 경향은 남아있다.
- 가령 영국에서도 중장년 여성은 공공부문의 보건·사회복지 직종, 그 중에서도 행정과 비서직에 집중되어 있다. 젊은 여성의 경우 서비스 및 판매 직종에 집중되어 있다 (윤수린 2019: 50).

윤수린. 2019. “유자녀 여성의 숙련 수준에 육아정책, 노동정책, 남성생계부양자 모델이 미치는 영향: OECD PIAAC 데이터를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53(4): 45-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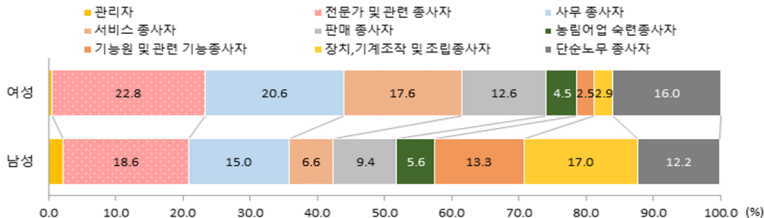
여성의 경제활동과 직업분포

- 어떤 일은 그 젠더화된 구조가 시대 변화에 따라 달라진다. 예를 들어 초창기 IT는 여자의 일이었으나 점차 남자의 일로 이행하였다.



여성의 경제활동과 직업분포

- 2020년 기준으로 여성 취업자는 (1)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가 가장 많고, 다음으로 (2) 사무 종사자, (3) 서비스 종사자 순서로 나타난다.
- 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가운데 중분류 수준으로 내려가면 (1) 보건·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과 (2) 교육 전문가 및 관련직에 주로 집중되어 있다.
- 유홍준 외 (2016: 96)에서 언급되듯 우리나라의 여성이 전문직에 많아보여도 사실은 준전문직에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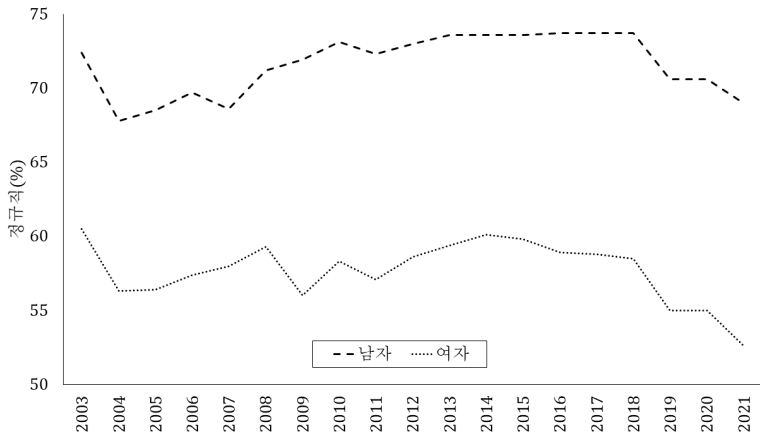
여성의 경제활동과 직업분포

- 문화적으로 종종 여성이 일하는 직무유형과 직무수준이 남성의 것과 분리된다.
이것을 이른바 **성별 직종분리(occupational segregation by gender)**라고 부른다.
- **수평적(horizontal)** 직종분리는 여성이 '특정한 직종에 특정한 직무'에 종사하여 남성과 뒤섞이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 **수직적(vertical)** 직종분리는 특히 조직 계층(hierarchy)의 맥락에서 상하로 남녀가 뒤섞이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 성별 직종분리를 주제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 (1) 여성 직종에서 여성은 균등 직종에 있는 여성에 비해 어떤 성과를 거두는가?
 - (2) 재직자훈련 또는 **인적자원개발(human resource development)**은 성별 직종분리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는가?
 - (3) '여자의 일'을 하는 남자는 노동시장에서 어떤 성과를 거두게 되는가?

여성의 경제활동과 직업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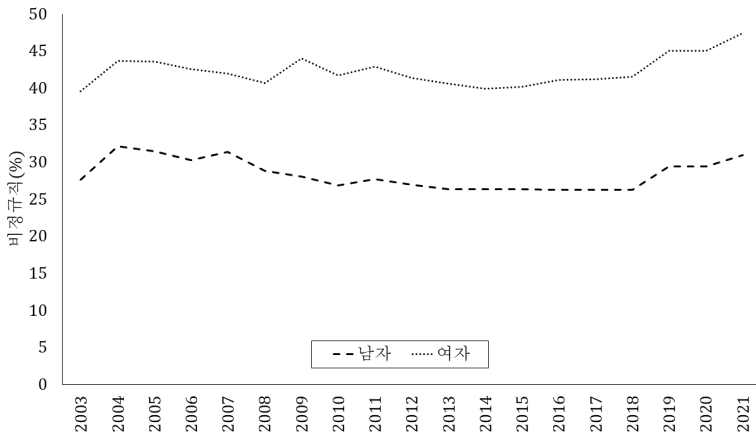
셋째, 고용형태별로도 남성이 여성보다 유리한 위치에 놓여있다.

- 정규직 비율은 남성이 여성보다 크게 높다. 이 격차는 점점 더 벌어져서 2003년 약 12%에서 2021년 16.5% 정도로 격차가 벌어졌다.



여성의 경제활동과 직업분포

- 비정규직 비율은 정규직 비율의 거울 이미지이므로 쉽게 유추할 수 있다.



여성의 경제활동과 직업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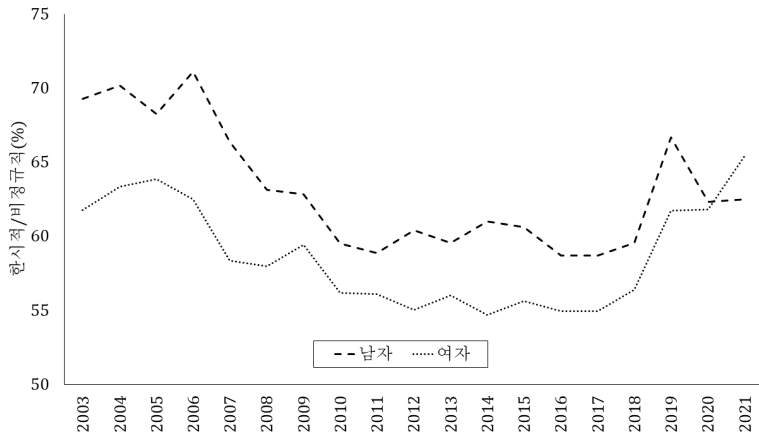
- 사실 비정규직은 상당히 긴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최근에서야 사회문제가 되었을까?
- 이는 **공적 문제의 사회적 구성(social construction of public problems)**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 즉 타가 후토시가 지적하듯 (특히 기혼) 여성의 일은 이미 오래 전부터 비정규직이었다. 그런데 (생계부양자인) 남성 다수가 비정규직이 되어 **생계부양자 모형(breadwinner model)**의 헤게모니가 흔들리자 이제 비로소 비정규직이 사회문제로 부상한 것이다.

여성의 경제활동과 직업분포

- 수백 년간 지속되어 온 생계부양자 모형에 따르면 남성은 가계부양자로서 가족임금 (family wage)을 받도록 기대된다.
- 늘어나는 부양가족을 고려하여 남편의 임금은 근속연수에 따라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이 기대된다.
- 여성은 일차적으로 남편의 소득에 의존하며, 가계소득에 약간의 '반찬값'을 더하기 위해 일할 수도 있다는 전제를 가지고 있다.
- (부르주아지가 아닌 이상) 남성은 고강도 장시간 노동을 불평없이 수행하도록 요구받으며 이 의무를 게을리하는 것은 가족을 저버리는 행위로 여겨진다.
- 이 모형이 사회적으로 수용될 때의 당시 사람은 모두가 일찌감치 결혼했다! 이제 결혼과 출산을 둘러싼 사회제도가 무너지고 있으므로 생계부양자 모형은 이미 완전히 파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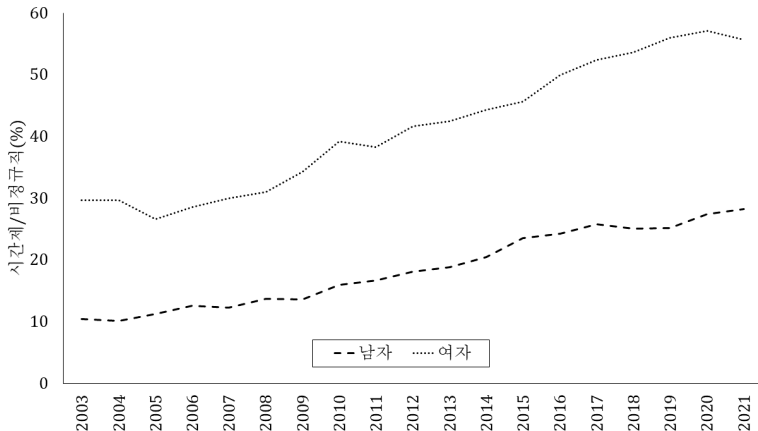
여성의 경제활동과 직업분포

- 전세계적으로도 비정규직 안에서 젠더 격차는 미묘한 형태로 나타난다. 가령 타가 후토시는 일본남자 중에는 니트(NEET)가 많고, 일본여자 중에는 프리터가 많다고 지적한다.
- 우리나라의 경우에 한시적 근로자는 남자가 많고, 시간제 근로자는 여자가 많다.



여성의 경제활동과 직업분포

- 시간제 근로자는 점점 더 많은 여자로 대체되고 있다(Wh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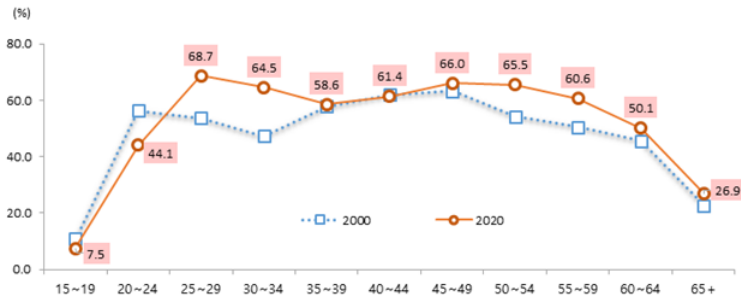
여성의 경제활동과 직업분포

넷째, 여성의 연령별 취업상태가 M자형으로 나타난다.

- 여성의 연령별 취업상태를 보면 결혼·임신·출산·육아 등으로 인해 **경력단절**이 발생하여 M자형 고용률을 보인다.
- 경제사회적으로 선진국의 경우 여성의 경력단절이 거의 발생하지 않아 M자형으로 폭 꺼지지 않지만(유홍준 외 2016: 334), 그렇지 않은 나라에서는 여성이 가장 경제적으로 생산적일 때 일하지 않아(또는 못해) 허리가 폭 꺼진다.
- 즉 성별 직종분리는 선진국에서도 여전히 남아있지만 M자형 경제활동 구조는 대체로 사라졌다.

여성의 경제활동과 직업분포

- 두 가지 방법으로 이에 대응할 수 있다. 첫째, 보육지원·육아휴직 등 **모성보호(maternity protection)** 프로그램이 탄탄해질수록 경력단절을 대체한다(e.g., 스칸디나비아 국가들).
- 둘째, 결혼·임신·출산·육아를 극한까지 미루거나 포기하면 경력단절은 발생하지 않는다.
- 그건 그렇고 최근 들어 우리나라의 M자형 연령별 취업상태는 (1) 우측으로 이동하였고, (2) 제법 개선되었다(Why?).



여성의 경제활동과 직업분포

- 다시 말해, 여성의 인적자본(human capital) 못지않게 출산이나 양육 부담과 같은 생물학적-생애주기적 요인이 고용에 큰 영향을 미친다.
- 기업은 기업대로 입직 후 금방 결혼하여 임신·출산·육아로 퇴직할지도 모르는 여성의 고용을 꺼린다.
- 그러므로 경력단절을 경제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또는 감내하기 싫은) 여성은 아예 처음부터 결혼·임신·출산·육아를 피한다.
- 혹은 임신 등의 계획이 있는 여성은 기업특수적 숙련(firm-specific skills)에 투자하지 않는다(Why?). 물론 기업도 여성의 이런 행동을 예측할 수 있으므로 (남성만큼) 장기적인 인적자본 투자를 하지 않는다.
- 그 결과 기업에 남아있고 아이를 낳은 여성은 일정 이상 승진하기 어렵고 임금상승도 곤란하게 된다. 이것이 잘 알려진 모성 패널티(motherhood penalty)이다. 결과적으로 승진심사에서 직접적인 차별없이도 유리천장(glass ceiling)이 형성될 수 있다.

여성의 경제활동과 직업분포

이상을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은 기본적인 패턴을 확인할 수 있다.

- 첫째, 여성은 남성보다 노동에 종사하는 비율이 낮다.
- 둘째, 산업 및 직업별로 남자의 일과 여자의 일이 ‘미묘하게’ 따로 있다.
- 셋째, 고용형태별로도 남성이 여성보다 유리한 젠더 격차가 발견된다.
- 넷째, 후진국에서는 여성의 연령별 취업상태가 M자형으로 나타난다. 우리나라가 그렇다.
- 분명히 경찰참여, 산업 및 직업분포, 고용형태 분포, 연령별 취업상태 상 문제가 있음을 통계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여성의 경제활동과 직업분포

다만 문제를 확인했다고 해도 이를 해결하는 수단이 마땅치 않다.

- 이 문제들은 어느 한순간 생겨난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에 걸쳐 불균형 상태가 지속되면서 쌓여온 것이다.
- 이른바 ‘공무원 양성평등 목표제(속칭 여성할당제)’ 같은 **적극적 고용(Affirmative Action; AA)**은 빠른 시간에 이 문제를 해결하는 전략 중 하나이다([링크]).
- 이런 정책에 대해 **역차별(reverse discrimination)**이라고 화내는 사람(특히 젊은 남성 구직자)이 나타나는 것은 불보듯 뻔하고 이들은 정치적인 세력으로 종종 규합한다(Why?).
- 단시간에 해결하고자 하면 사회갈등의 높은 비용을 수반한다. 그러나 천천히 해결하고자 하면 (지금 이 순간을 살아야 하는) 사람들은 계속되는 불이익을 감내해야 한다.
- 이와 유사한 사회적 동학(social dynamics)이 젠더 뿐 아니라, 환경 및 기후위기·인종 및 민족 집단·지역 등 여러 아젠다를 둘러싸고 (우리나라 뿐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나타난다.

성별임금격차

성별임금격차

성차에 따라 임금에도 격차가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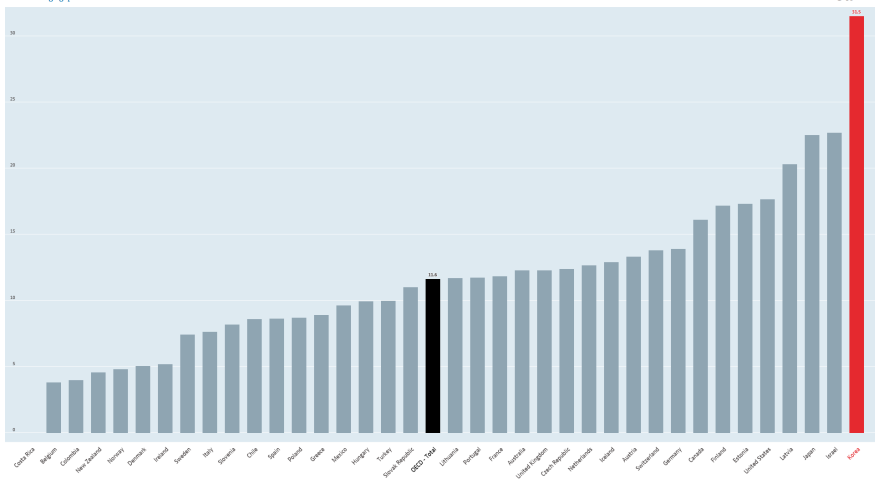
- 성별임금격차(gender wage gap)은 가장 단순하게 남성과 여성의 중위소득(median earnings) 차이를 남성의 중위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표현된다.

$$G = \frac{M_e^{\text{남}} - M_e^{\text{여}}}{M_e^{\text{남}}}$$

- (성별임금격차라는 중립적인 표현을 써도) 일관되어 여성이 남성에 비해 낮은 임금을 받는 경향은 사실 전세계적으로 나타난다.
-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매우 질이 나쁜 사례로 국제사회에 알려져 있다(2021년 약 32.5%로 OECD 기준 세계1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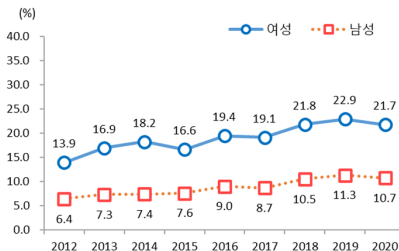
성별임금격차

Gender wage gap Employees, Percentage, 2020 or latest availab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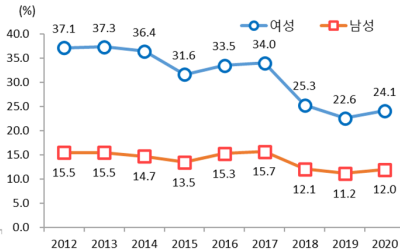


성별임금격차

- 성별임금격차는 보통 전일제(full-time)만 비교한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 정규직 기준이 아니라 비정규직, 특히 불안정노동자(precarious worker)만을 기준으로 하면 상황은 더 극단적으로 치닫는다.
- 워킹 푸어(working poor), 즉 일을 해도 빈곤을 면하지 못하는 비율은 여성이 훨씬 높다.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비율〉



〈저임금근로자 비율〉

성별임금격차

그런데 성별임금격차의 크기는 곧바로 성차별의 크기로 해석되지는 않는다.

- 대졸자 성별격차는 이제 거의 소멸되었지만 성별임금격차는 30% 이상 남아있다는 점에서 분명히 차별을 시사한다.
- 그러나 차별의 크기를 정확히 추정하기 위해서는 다소 복잡한 이론적 논의가 필요하다.
- 임금은 (공부한 기간, 성적 뿐 아니라) 인적자본의 총량 뿐 아니라 전공-일자리 일치(job match), 직업분류(e.g., 관리직, 전문직 등), 근무시간, 산업군(생산성), 직급(직위 고하), 노조가입 여부 등에서 골고루 영향받기 때문이다.
- 단순격차의 문제를 넘어 성취 요소를 통제해야만 **동일노동 동일임금(equal pay for equal work) 원칙**의 위배 여부를 살펴볼 수 있다.
- 다시 말해, 성별임금격차 크기는 두 이질적 요소로 분해될 수 있다. 한 부분은 위 요소들로 **설명되는(explained)** 차이, 다른 부분은 **설명되지 않은(unexplained)** 성차별이다.

성별임금격차

똑같은 교육연수, 성적, 근속연수, 산업군, 직업군, 직급을 가진 남녀를 비교하여 격차를 보아야 한다.

- 여전히 지표로 쉽사리 측정되지 않는 **관찰되지 않은 이질성(unobserved heterogeneity)**이야 남겠지만 평균적으로 그 차이가 작다고 가정할 수 있다.
- 이와 같은 합리적으로 설명되는 요인들을 제거하고 ('오로지 여자라는 이유로' 소득이 낮아지는) 설명되지 않은 부분이야말로 성차별의 크기라고 볼 수 있다.
- 엄격한 계량적 방법론을 채택한 **분해분석(decomposition analysis)**이 성별임금격차 분야에 폭넓게 이루어졌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성별임금격차의 과반 이상은 설명되지 않은 부분, 즉 차별적 요소이다.

성별임금격차

성차별의 크기를 엄밀하게 실증적으로 추정하려는 시도는 무시할 수 없는 나름의 의의를 갖는다.

- 그러나 이런 접근의 한계도 있다.
- 첫째, 교육연수, 성적, 근무시간, 직급, 산업군, 직업군, 노조가입 자체가 합리적으로 설명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성차별의 구조적 결과는 아닐까? 이 입장에 따르면 분해분석은 지극히 피상적인 차별의 결과만을 보여줄 뿐이다.
- 이 비판은 이른바 **능력주의(meritocracy)**는 허구적임을 주장하는 논리와 잇닿아있다.
- 다만 이런 식으로 근원을 따져 올라가다보면 역사적으로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결국엔 어떠한 차별의 추정도 불가능하게 될지 모른다.

성별임금격차

- 둘째, 여성의 임금은 사실 2단계 과정(two-step process)을 밟는다. 즉 (1) 경제활동에 참여할 것인가를 먼저 결정하고 (2) 제안받은 임금을 수용하게 된다.
-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James Heckman은 1974년에 발표한 연구에서 젊은 여성은 경제활동에 참여한다면 자녀를 대신 돌봐줄 사람이나 기관에 비용을 지불해야 하므로 이들의 **유보임금(reservation wage)**은 그만큼 높아질 수 밖에 없음을 지적했다.
- 다시 말해, 표면상 관찰되는 여성의 임금은 남성의 임금과 단순히 비교될 수 없다. 만약 평균적으로 많은 여성들이 자녀양육에 높은 가치를 둔다면 유보임금은 크게 상승하므로 현재 시장에서 관찰된 여성 임금은 (똑같은 자질의) 남성보다 오히려 높아야 할 수도 있다(Why?).

Heckman, James. 1974. "Shadow Prices, Market Wages, and Labor Supply." *Econometrica* 42(4): 679-694.

성별임금격차

- 셋째, 여성이라고 다 똑같지 않다. 남녀 안(within)에서의 격차가 남녀 간(between) 격차만큼이나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 즉 노동시장에서 남성은 이익, 여성은 불이익이라고 단순화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남성과 여성 내부에서 각각 커다란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
- 여기에 더하여 불이익의 패턴에도 **상호교차성(intersectionality)**이 나타난다.
- 예컨대 똑같은 일을 하는 이주자 배경, 고령, 장애 여부에 따라 불리해지는 정도가 남녀 간에 차이가 나타난다(Why?).

성별임금격차

(성취와 전혀 상관없는) 생래적 지위조차도 임금에 영향을 미친다.

- Catherine Hakim은 〈Honey Money〉에서 아이비리그 출신 MBA 졸업생을 조사하여 육체적 매력은 임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침을 발견했다.
- (1) 남성은 매력적인 편이 그렇지 않은 쪽보다 14-28% 높은 임금을 받는다.
- (2) 매력적인 여성은 그렇지 않은 여성보다 12-20% 더 높은 임금을 받는다.
- (3) 비만인 사람은 평균적인 경우보다 임금을 14% 덜 받는다.
- (4) 매력적이지 못한 아이는 4명 중 3명이 평균 이하라는 평가를 받는다.
- 이러한 경향성은 30세 미만의 젊은 세대에게 더 집중된다. 이들은 아직 업무 능력에 대해서 객관화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기 때문이다.

가사노동의 성별분업

가사노동의 성별분업

(새삼스럽지만) 무엇이 직업이고 아닌지는 굉장히 사회문화적으로 구성된다.

- 정의상 직업(occupation)은 경제적(특히 화폐적) 소득을 목적으로 한 것에 국한되므로 가사노동은 직업이 될 수 없다.
- 가족을 벗어나 타인을 위한 가사노동이라면 (완전히 똑같은 일인데도) 직업이 된다. 그렇다면 가사노동을 위한 임금지불을 상상해도 전혀 어색하지 않다.
- 가사노동과 임금노동은 실체적으로 동일하며 단지 문화적으로 구분되었을 뿐이다. 그러므로 직업은 반드시 가사노동의 동학(dynamics)과 함께 살펴보아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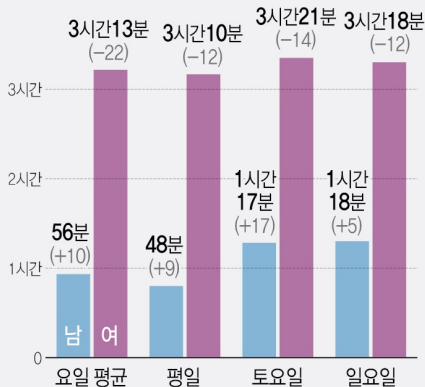
가사노동의 성별분업

2019년 기준으로 여성은 남성보다 약 3배 정도 더 가사노동을 수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우리나라 통계청은 미국의 시간사용연구(Use of Time Study)을 모델로 하여 생활시간조사를 실시해 왔다.
- 지난 1999년 처음 시행된 이후 5년 단위로 이루어져 최근 2019년 5회에 이르는 자료가 축적되었다. 시간 일지는 한 사람의 응답자가 서로 다른 두 요일에 시간 일지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수집되었다.
- 일반적으로 가사노동(domestic labor)은 (1) 가정관리와 (2) 가족 보살피기로 구분된다.

가사노동의 성별분업

2019년 기준, (): 2014년 대비



외벌이 가구 부부간 가사노동 시간 차이

※ 여성이 남성보다 일하는 시간차



자료/ 통계청

가사노동의 성별분업

급진적 시각에서 가사노동 분업구조를 비판하는 이론적 관점이 있다.

- 페미니즘(feminism)은 여러 이론적-정치적 분파를 가지고 있으며 특히 급진적 페미니즘(radical feminism)은 타도의 대상으로서 (자본주의와 독립된) 가부장제(patriarchy)에 주목하고 있다.
- 이른바 자본주의를 전복시키더라도 성(sexuality)을 매개로 단혼 소가족 질서에 의한 지배를 실천하는 가부장제는 사적 영역에 끈질기게 남아있으므로 이에 집중해야 한다고 본다.
- 자본주의가 생산관계, 즉 상품의 생산을 둘러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의 지배한다면, 가부장제는 재생산관계, 즉 휴식, 육아, 간호 등 인간의 (재)생산을 둘러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지배한다.

제도	자본주의	가부장제
사회관계	생산관계	재생산관계
사회영역	공적 영역	사적 영역
지배형태	제급에 의한 지배	성에 의한 지배
지배공간	생산시장	단혼(monogamy) 소가족

가사노동의 성별분업

- 이 이론적 관점에 따르면 가사노동이란 가부장제 질서를 유지·재생산하기 위해 여성을 착취하는 과정에 다름아니다.
- 여성에 적절한 임금이 지불되지 않으므로 가사노동은 곧 **부불노동(unpaid labor)**이다.
- 자본주의에서 자본가가 지불하는 노동력의 가치(=화폐임금)는 노동자의 재생산 비용과 같거나 그보다 높을 뿐, 노동자가 생산한 노동의 진정한 가치보다 작다. 그 차이만큼 착취(exploitation)가 발생한다(제5주차 및 제9주차 강의안 참고).
- (똑같은 원리로) 가부장제에서는 가사노동은 여성-주부가 재생산할 수 있을만큼만 돈이 주어질 뿐, 여성-주부가 생산한 가사노동의 진정한 가치만큼은 아니다. 그만큼 마찬가지로 착취가 발생한다.
- 즉 생산시장에서 피착취자인 남성 노동자는 다시 단혼 소가족 안에서 여성-주부를 착취한다.

가사노동의 성별분업

종종 자본주의와 가부장제는 결합되며 그것은 여성-주부에게 복합적인 함의를 갖는다.

- 급진적 페미니즘에 따르면 역사적으로 여성은 남성보다 오히려 더 많은 부불노동을 수행했다.
- 부르주아지가 프롤레타리아 계급의 남성에게 많은 부불노동을 떠넘길 수 있는 비결 중 하나는 이들이 다시 여성에게 많은 부불노동을 떠맡길 수 있었기 때문이다.
- 부르주아지는 주부의 (부불노동인) 가사노동 덕택에 프롤레타리아 남성에게 노동력의 재생산 비용을 지불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므로 “자본주의는 필연적으로 가부장제에 의존한다”는 명제가 도출된다.

가사노동의 성별분업

하지만 자본주의와 가부장제의 경계는 때로 모호하다.

- 때때로 (가령 밀키트같은 외식산업이 발달하면) 부불노동은 지불노동(paid labor)으로 전환된다.
- 우리가 “예전엔 그냥 집에서 먹어서 돈이 안들었는데 요즘 외식비가 많이 들어”라고 되뇌일 때, 사실 이것은 누군가의 부불노동을 더이상 누릴 수 없게 되었음을 의미할 뿐이다(Why?).
- 역사적으로 재화와 서비스를 자체 생산해내는 가족의 기능은 계속해서 축소되고 있다. 개호, 육아, 음식, 사회화 등이 병원, 유치원, 식당/밀키트, 학교 등으로 넘어갔고 여성은 점차 경찰에 참여하였다.
- 이러한 전환의 결과, 이제 부르주아지는 프롤레타리아 남성과 여성에게 재생산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대신 소비재 시장의 확대를 기대할 수 있다.

가사노동의 성별분업

남성은 밖에 나가 일하고 더 많은 소득을 벌어들이기 때문에 여성이 가사노동을 더 많이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반박이 있다.

- 이 주장의 검증은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감정적인 반응을 내려놓고) 신중하게 살펴보아야 한다(Why?).
- 이 주장의 키포인트는 여성의 긴 가사노동 시간은 불합리한 성차별적 결과가 아니라, 단지 (집 밖) 노동분업을 ‘합리적으로’ 반영했을 뿐이라는 것이다.
- 그런데 현실에서 평균적으로 남성이 경찰참여율과 (집 밖) 노동시간이 실제로 길기 때문에 이 주장을 간단히 테스트하기 어렵다(Why?).

가사노동의 성별분업

- 그래서 몇몇 사회학자들은 여성 외벌이 또는 부인이 남편보다 고소득인 가정을 조사하여 이 주장의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 (합리적 가사분업이라면) 가령 여성 외벌이인 경우 똑같이 남성이 여성보다 약 3배 정도 가사노동을 더 수행해야 한다.
- 그러나 여성 외벌이인 경우에도 (반대로 3배는 커녕) 여전히 여성이 남성보다 30분 더 일한다.
- Arlie Hochschild (1989)는 시장노동과 비시장노동은 기혼여성이 결국 야간근무(second shift)를 하도록 만든다고 지적하였다.

Hochschild, Arlie R. 1989. The Second Shift: Working Parents and the Revolution at Home. New York, NY: Viking.

가사노동의 성별분업

- 상징적 상호작용론(symbolic interactionism) 관점에서 몇몇 연구자들은 다소 색다른 예측을 내놓는다.
- 즉 아내가 소득이 높은 경우 가사노동을 분명히 덜한다(즉 기존 반론을 일부분 인정한다). 그러나 점차 소득이 남편보다 많이 높아져 ‘보통 가족’의 **성역할 고정관념(gender role stereotype)**과 명백히 달라진다면 **젠더일탈 중화기법(gender deviant neutralization techniques)**을 사용하게 되어 오히려 아내가 약간 가사노동을 더 한다는 것이다(Greenstein 2000).
- 다시 말해, 가사분업은 그렇게 합리적인 분업의 결과물이 아니라 (사회의 주류적 젠더 질서를 반영하는) **문화적 분업(cultural division of labor)**이라는 점을 지적한다.

Greenstein, Theodore N. 2000. "Economic Dependence, Gender, and the Division of Labor in the Home: A Replication and Extension."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2(2): 322-335.

가사노동의 성별분업

- 아내의 곡선이 남편의 곡선 아래로 결코 내려가지 않음에 주의해야 한다.

FIGURE 1. OBSERVED HOURS OF HOUSEWORK PERFORMED PER WEEK BY HUSBANDS AND WIVES BY LEVEL OF WIFE'S ECONOMIC DEPENDEN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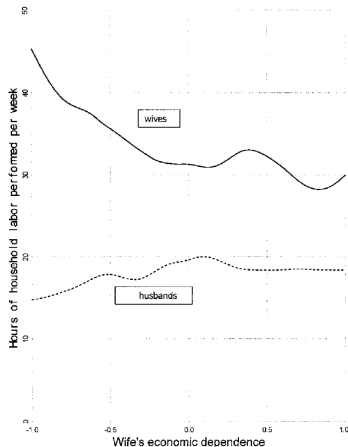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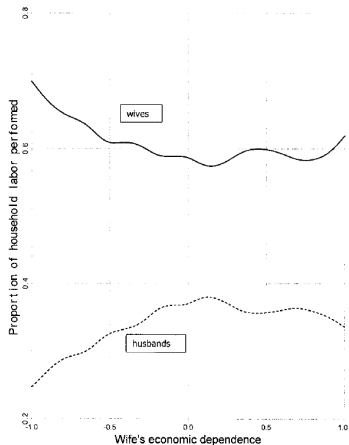


FIGURE 2. OBSERVED PROPORTION OF HOUSEWORK PERFORMED BY HUSBANDS AND WIVES BY LEVEL OF WIFE'S ECONOMIC DEPENDENCE



가사노동의 성별분업

이상의 내용을 정리해보자.

- 가사노동과 직업은 문화적 경계로 나뉘어 있을 뿐이므로, 직업을 살펴볼 때 가사노동을 꼭 고려해야 한다.
- 여성이 남성보다 많은 가사노동을 수행해왔고 급진적 페미니즘은 이를 여성에 대한 착취로 해석하였다.
- 이에 대해 남성은 밖에서 돈을 벌어오기 때문에 이것은 합리적 분업이라는 반론이 있다.
- 가사분업은 (젠더 질서에 따른) 문화적 분업이라는 증거로 여성 외벌이 혹은 여성이 상대적으로 많이 벌더라도 여전히 여성이 가사노동을 더할 뿐 아니라, 심지어 젠더일탈 중화기법마저 사용해야 한다는 재반론이 있다.